

# 감정노동 힘드시죠? 감성치유 어때요

근로자 63%가 고객 폭언 경험

심리치료상담·문화기행 등

광주시노동센터 이달부터 운영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직장인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할 때에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고객의 폭언에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웃으면서 응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판매, 유통, 음식, 관광 등 주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종종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린다. 광주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

들다 예외는 아니다. 감정노동자 1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기계약직 직원이 75%를 차지하고, 월 평균 1~2회 정도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63%, 감정노동 피해를 입은 노동자 중 그냥 참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94%를 차지했다.

85%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처한다”고 했다.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노동자는 68%에 그쳤다. 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하거나 법적 대응 등을 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대형마트 12곳 중 6곳에서 설문지 작성 방식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노동자의 노동조건 모니터링 결과다.

광주시노동센터가 감정노동자의 고충을 나누기 위해 심리치료상담과 공동체 놀이, 문화기행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고 1일 밝혔다.

프로그램 중 심리치료상담과 공동체 놀이는 3월부터 11월까지,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기행은 연 6회 열 계획이다.

프로그램마다 40명씩 무료로 진행하며 참가 신청은 광주광역시노동센터 홈페이지(누리집 www.nodongcenter.org)에서 접수한다.

박병규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감정노동자의 고충은 감정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 지자체의 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정부의 감정노동 보호제도 신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광주시노동센터 062-364-999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지역 대형마트 감정노동 실태

<161명 설문>

폭언당한 후 대응 방식(항목별 응답)	
개인적으로 참고 넘긴다	94%
나만의 대처방법이 있다	85%
상사 등에게 도움 요청	68%
고충위원회에 해결 요청	39%
법적 대응 등으로 해결	28%

감정노동 유형별 비율(항목별 응답)	
고객을 위해 감정을 조절한다	73%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	57%
근무가 끝나면 녹초가 된다	56%

<자료:광주시노동센터>

광주시 공무원 3500명 대상

오늘 주요 시정시책 교육

광주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2일부터 이틀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시 전 직원과 공사·공단 임직원, 자치구 직원 등 3500명을 대상으로 시정시책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 공직자가 올해 시정방향과 주요 시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민중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윤정현 시장과 정구현 카이스트 초빙교수의 특강, 2016년도 주요시책과 광주형 일자리창출모델 설명 등이다

이번 교육에서 윤 시장은 ‘더불어 행복한 광주공동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행정의 기본은 사람중심,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임을 강조하고 광주를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찾아가서 머물고 싶은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구상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정구현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국가 거버넌스 위기와 광주광역시 기회’라는 주제로 한 강의에서 새로운 지역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선거법 준수, 공무원부터 광주시는 지난 2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공무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시 제공>

## 상무역·남광주역·금남로4가역 올해도 흥겨운 가락

광주 지하철이 흥겨운 문화공연으로 새 봄을 알린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는 3일 상무역 등 3개역에서 ‘2016 지하철 예술무대 개막식’을 갖고 올 한해 풍성한 문화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막공연은 상무역과 남광주역·금남로4가역에서 열리며, 11개 단체 80여명의

자원봉사 공연자들이 색소폰, 국악, 가요 연주,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이날 금남로4가역에서는 ‘강귀자 예술단’과 ‘무등메아리 공연단’, ‘조단우리가 락연구회’가 가요, 연주, 국악 등 흥겨운 공연으로 봄기운을 선사한다.

또한 상무역에서는 ‘지니로니 통기타’,

‘사수령댄스협회’, ‘최영선 어울림한마당’, ‘김문옥 댄스&퍼포먼스’가 신나는 음악과 전통무용, 댄스 등을 펼치고, 남광주역에서는 ‘임석인과 좋은 친구들’, ‘마리내 색소폰’, ‘놀이패 만월’이 새 봄을 맞아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인다.

공사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일 년 내내 특색있는 지하철 예술무대와 함께,

‘찾아가는 지하철 예술무대’,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등 테마공연을 펼치며 문화광주를 대표하는 공연문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새 봄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마음까지 밝아질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면서 “2016년에는 더욱 새롭고 수준높은 문화공연으로 시민여러분께 행복을 전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시민대상’ 후보 내달 1일까지 접수

사회봉사 등 5개 분야

광주시는 ‘2016년 광주광역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2일부터 4월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올해로 30회째를 맞는 광주시민대상은 광주시민으로서 학문의 진흥과 문화 예술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의 명예 선양과 지역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한다.

공모 부문은 ▲사회봉사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등 5개로 나눠 각 1인을 선정, 시상한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2016년3월2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자로 각 부문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사회봉사대상 부문은 희생적인 봉사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이웃돕기에 헌신한 실적이 뚜렷한 자, 경료효전사상이 투철한 자, 신문·방송·잡지·출판 등의 분야에서 언론 창달과 출판분야에 공헌한 자, 기타 지역 발전에 적극 협조해 선진 광주 건설에 크게 기여한 자 등이다.

학술대상 부문은 인문·자연·사회과학과 교육 분야에 괄목할 만한 연구실적

또는 새로운 논문 발표로 학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다. 또 예술대상 부문은 공간·무대·전통예술 등 예술 진흥 발전에 기여한 자, 시·시조·소설·희곡·시나리오·수필·평론 등 문학분야에 공헌한 사람이다. 체육대상 부문은 체육지도와 행사를 통해 지역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하거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으면 된다.

지역경제진흥대상 부문은 기업 발전과 지역 내 투자유치에 공헌한 사람이나 과학기술 창달과 수출산업 육성에 공헌한 사람, 시민 저축의식 함양에 공헌한 사람 등이다.

수상 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사회단체장,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 또는 시민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출 서류는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기타 공적증빙자료 등이다.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해서는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5월21일 제51회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추천서는 광주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문화전당 일원 ‘청년의 거리’ 사업자 공모

광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역량을 발굴해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청년의 거리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자를 모집한다.

‘청년의 거리’는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재능, 제품과 콘텐츠 등이 각각 흩어져 있어 발전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이 가진 유·무형의 콘텐츠를 모아 시 보여주는 거점으로 조성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활짝 열린 5·18민주광장 일대와 문화전당을 둘러싼 순환로, ‘(가칭)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서는 동명동 일대까지 단계적으로 키워갈 계획이다.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거리 조성 사업

방식을 벗어나 프로그램을 통해 거점을 형성해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며 음식, 패션과 뷰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디자인 등 각 분야별로 나눠 청년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장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순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시장 개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컨설팅과 마케팅, 투자 등 전문가와 직접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오는 11일까지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면 4월 넷째주 토요일 첫 번째 장을 펼쳐 10월까지 매달 청년의 거리가 열리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119소년단’ 모집...대학생도 신청 가능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일부터 4월30일까지 2016년도 한국119소년단을 모집한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로 구성된 한국119소년단은 그동안 학교 또는 학급 단위의 학생과 지도교사로 구성해오다 올해는 개인, 단체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가입은 한국119소년단(www.young119.or.kr)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119소년단원은 소방안전교육과 119소방동요대회, 119안전뉴스경연대회 등 소방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모든 소방안전 체험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여름방학에 열리는 ‘소방안전 체험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불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제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